

# 위클리 글로벌

2017. 2. 27. Vol.4

# 목 차

2017. 2. 27. 해외사업진흥팀

구 분	제 목
미국	- '아델' , 그래미 어워드 5관왕 달성 -美 완구업체 마텔,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아
중국	-광전총국, 중국 드라마 및 웹드라마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 제시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알리바바픽처스·러스, 잇따른 약재...
일본	-TIFFCOM 2017, 이케부쿠로 이전! 영화 메카로 새롭게 부상 -효고현(兵庫県) 아와지섬(淡路島),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7월 개설
유럽	-큰 성과를 거둔 2016년 영국 창조 산업 -Eurosport 평창 올림픽 중계를 위한 전략 개발 중
인도네시아	-2016 자카르타 게임 엑스포, 인니 게임산업 잠재력을 보다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 2017 SXSW 페스티벌 참가 결정

# 미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2. 27(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비즈니스센터

## □ ‘아델’ , 그래미 어워드 5관왕 달성

- 지난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제 59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아델이 주요 3개 부문을 포함해 5개상을 수상함
- 아델의 ‘헬로’ 는 ‘올해의 노래’ 와 ‘올해의 레코드’ 에, ‘헬로’ 가 포함된 앨범 ‘25’ 가 ‘올해의 앨범’ 에 선정되었고,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와 ‘베스트 팝 보컬 앨범’ 까지 후보에 오른 5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
- ‘올해의 프로듀서’ 역시 아델의 앨범을 만든 그레그 커스틴에게 돌아갔음
- 아델은 2012년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앨범 ‘21’ 과 ‘Rolling in the Deep’ 으로 대상을 독차지한 바 있음
- 또한 아델은 그래미 역사상, 연속 발매한 정규 앨범으로 주요 3개 부문을 수상하며 최초로 신기록을 경신했음
- 이날 아델은 올해의 앨범상 수상소감을 하며, 경쟁 후보에 함께 올라 라이벌이었던 비욘세를 향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며, 트로피를 두 동강내 화제를 모았음
- 비욘세의 ‘레모네이드’ 는 주요 3부문을 포함해 9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으며, ‘베스트 어반 컨템포러리 앨범’ 과 ‘베스트 뮤직 비디오’ 상을 수상했음
- 또한, 지난해 세상을 떠난 영국의 전설적인 록스타 고 데이비드 보위는 유작인 ‘블랙스타’ 로 ‘베스트 록 송’, ‘베스트 록 퍼포먼스’, ‘베스트 엔지니어드 앨범’, ‘베스트 얼터너티브 뮤직 앨범’ 상까지 4관왕을 안았음
- 한편, 이번 그래미 어워드 공연에는 아델과 브루노 마스가 고 조지 마이클 과 프린스의 헌정 무대를 선사해 큰 감동을 주었음

## □ 美 완구업체 마텔,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아

- 세계적인 미국의 완구업체 마텔(Mattel)이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Alibaba)와 전략적 협력을 약속하고, 중국 소비자들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및 교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완구 개발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힘
- 마텔과 알리바바가 협력해 만든 제품들은 알리바바의 중국 1위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Tmall.com)뿐 아니라, 중국 최대 소셜 사이트인 웨이보(Weibo) 등을 활용해 판매될 예정
- 바비인형을 비롯해, 핫 휠스(Hot Wheels), 매취박스(Matchbox), 토마스와 친구들, 피셔 프라이스(Fisher-Price) 등으로 유명한 마텔은 유아 완구

기획부터 설계, 생산, 판매를 모두 소화하는 세계 최대 완구업체임

- 그간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을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마텔은 알리바바와의 협력으로 중국 시장 판매 루트를 확대하고 마케팅 전략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임
- 액티브 유저 4억 4,000만 명을 가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최근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업체 유쿠와 투도우 등을 두고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주목받고 있음
- 알리바바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중국 소비자 소비 패턴 분석과 마텔의 브랜드 인지도 및 전문 기술이 결합해, 중국 완구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가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2. 27(목)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 비즈니스센터

## □ 광전총국, 중국 드라마 및 웹드라마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 제시

- 2017년 2월 19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방송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드라마제작 위원회의 2016년 연례총회에 국가신문광전총국 드라마사(司) 사장 마오위(毛羽)와 인터넷동영상프로그램 관리사 사장 뤼젠후이(罗建辉)가 참석하여, 드라마 및 웹드라마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관리규칙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룸
- 마오위 사장은 잘못된 드라마 제작방법·홍보 관리·스타의 높은 출연료·소재 심사기준 등의 대해 설명함. 특히 <방송드라마 종합평가 지도의견 수립에 대한 통지(关于建立广播电视剧综合评价指导意见的通知)>를 거론하며, **각급 방송기관들은 드라마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연예인을 지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한편, 뤼젠후이 사장은 중국 인터넷동영상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모방 또는 저속한 내용을 소재로 삼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꼽음. 특히 <인터넷 창작 동영상프로그램 기획 수립과 관리에 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网络原创视听节目规划建设和管理的通知)>를 거론하며, 인터넷동영상프로그램 제작前·제작中·제작後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 밝힘

## □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2017년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영화산업촉진법(电影产业促进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이번 법안에서 ①영화 제작 자금 등 조건에 충족되는 기업에게 보다 쉽게 <영화촬영허가증>을 발급하여, 자본의 영화시장 진입 문턱을 낮춤 ②영화시나리오 심사에 있어 카테고리를 ‘일반 소재’와 ‘특수 소재’로 구분하여, 일반소재 시나리오의 경우 심사 과정을 폐지하여 등록만 하되, 특수소재 시나리오의 경우 국무원 영화 주관부문 또는 해당 행정구역 영화 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기존의 심사 단계를 축소함 ③<영화상영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의 영화를 영화제에 출품할 경우, 5년간 영화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④영화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심사 단계를 거쳐야하며,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⑤영화관은 관객에게 영화 상영 시간을 명시해야하며, 광고 영상을 상영할 수 없음 ⑥영화 판매 수익을 허위로 통계하거나 사실에 의거한 통계수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 알리바바픽쳐스 · 러스, 잇따른 악재...

- 2016년 12월 31일까지 알리바바픽쳐스(阿里影业)는 9억 5천만 위안(약 1,586억 원)의 순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인 타오파오파오(淘票票)의 무리한 시장 확장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알리바바픽쳐스는 계속해서 타오파오파오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최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새로운 리파이낸싱(재융자) 정책을 마련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식 비공개(사모)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이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자금조달과 금융버블을 양산할 수 있는 투기를 막고 더 많은 자본이 실물경제로 유입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이 때문에 최근 LeTV가 가장 많은 이슈를 낳으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LeTV는 2016년 5월 2017년까지 Le픽쳐스의 주식 100%를 매입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98억 위안(약 1조 6,362억 원) 모금을 목표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작년 3분기 실적 부진 등으로 일정을 미루게 됨.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증권시장 관리감독이 올 초부터 강화되자, Le픽쳐스의 주식매입이 2018년까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일본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2. 27(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비즈니스센터

## □ TIFFCOM 2017, 이케부쿠로 이전! 영화 메카로 새롭게 부상

-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도쿄국제영화제의 병설 기획행사 TIFFCOM이 2017년부터 토시마구 이케부쿠로(豊島区池袋)에 위치한 선샤인시티(Sunshine City Corporation)로 이전 개최(2017. 10. 24(화) ~ 26(목))를 결정함
- TIFFCOM은 영화, TV, 애니메이션, 출판 등을 취급하는 멀티콘텐츠마케팅 시장으로, 2016년에는 총방문자 수 18,330명, 참가사(단체 등) 356개 (21개국), 바이어등록수 1,539명 (49개국 및 지역)의 실적을 이룸
- 토시마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케부쿠로는 국제예술문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선샤인시티를 중심으로 4개의 공원이 조성되며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 개최할 계획」 이라고 밝힘
- 이케부쿠로는 2020년 도쿄 올림픽 · 장애인 올림픽 개최에 앞서 2개의 新 시네마 콤플렉스(cinema complex, 22개 스크린) 설치 예정으로, 신주쿠와 시부야에 이어 영화 메카를 목표로 함

## □ 효고현(兵庫県) 아와지섬(淡路島),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7월 개실

- 「파소나그룹(Pasona Group Inc., 인재파견사업 등)」(도쿄)은 효고현립아와지섬공원(아와지시, 淡路市)에 2017년 7월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니지젠노모리」를 개실한다고 발표
- 다카라즈카시(宝塚市)가 자랑하는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 씨 원작 「불새」를 소재로 한 프로젝트 맵핑(가칭 ‘나이트워크 불새’)과, 인기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운동코스(가칭 ‘짱구는 못말려 어드벤처파크’) 등으로 구성. 세계에서 주목받는 일본애니메이션 작품을 테마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 연간 100만 명 입장을 기대
- 효고현립아와지섬공원은 1985년 개설되었으며, 케이한신(京阪神, 교토시, 오사카시, 고베시 등 세 도시를 지칭)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약 33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임. 효고현은 2013년에 공원 활성화 방안을 공모, 2017년 개설을 목표로 파소나그룹의 기획을 선정

# 유럽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2. 27(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 비즈니스센터

## □ 큰 성과를 거둔 2016년 영국 창조 산업

- 영국 문화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은 영국 창조산업의 성과가 매우 두드러진 시기였음
- 우선 영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매출이 16억 파운드(약 2조 2,716억 원)으로 2015년보다 13%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 영국 박스오피스 3대 최고 흥행작인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Rogue One: A Star Wars Story)>, <신비한 동물사전(Fantastic Beasts and Where to Find them)>, 그리고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Bridget Jones's Baby)> 모두 영국에서 제작되었음. 영화 흥행만 보면 역대 두 번째로 좋았던 해로서 영화관 티켓 판매는 12억 2,700만 파운드(약 1조 7,420억 원)를 기록
- 또한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 <더 크라운(The Crown)> 등의 고급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영국으로 진출하여 4억7천8백만 파운드(약 6,786억 원)를 지출
- 한편 음악 부문에서는 스트리밍 및 레코드 판매가 1억 2,340만 파운드(1,752억 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5% 증가

## □ Eurosport 평창 올림픽 중계를 위한 전략 개발 중

- 프랑스에 기반한 범유럽 TV네트워크의 피터 허튼(Peter Hutton) 사장은 Eurosport가 평창 올림픽 중계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
- 이 전략은 웨어러블 기술과 VR을 활용해 일명 ‘존재하지 않는 좌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피터 허튼은 이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방송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피력
- 프랑스 파리에 연구개발 허브를 설립한 Eurosport는 선수들의 심박수, 혈당 수치와 같은 생체인식 자료를 측정할 수 있으며 GPS 위치 기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패치를 경기 중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스포츠 단체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런 기술을 통해 심층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즐길 줄 아는 스포츠팬들을 위한 가장 선진적인 방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또한 Eurosport VR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가상현실 기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경기(스키 등)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메달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담은 VR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



#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2. 27 (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 □ 2016 자카르타 게임 엑스포, 인니 게임산업 잠재력을 보다

- 2016년 11월 29일부터 30일 2일 간 자카르타 발라이 가르띠니(Balai Kartini) 전시장에서 인니 창조경제위원회(BEKRAF)와 인니 게임협회(AGD) 공동으로 ‘2016 자카르타 게임 엑스포(Prime Game 2016)가 개최됨
- 이 엑스포는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게임 개발사의 게임 위주의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의 행사가 열림
- 이 행사에는 게임 개발자, 투자자, 일반인 등 4,000여명의 다양한 계층이 방문했으며, 138개의 홍보부스와 85명의 게임개발자가 참가했음
- 안디 수르얀또(Andi Suryanto) 인니 게임협회(AGD) 회장을 비롯하여 하리 승카리(Hari Sungkari) 인니 창조경제위원회 인프라실장 등이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했으며, 안디 회장은 창조경제위원회가 8월 8일을 인도네시아 게임의 날로 지정한 것을 밝히며, 2016년은 자국 게임산업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게임산업은 2014년 1억 8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을 함으로서 매년 70%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현재 인도네시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인도네시아 개발사가 개발한 수많은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
- 하리 창조경제위원회 실장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IoT 산업과 어플리케이션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 창조경제위원회 주최로 ‘개발자의 날(BOD; BEKRAF Developer Day)’ 행사를 개최할 것을 밝혔음
- 2017년 8월 5일부터 6일까지 ‘자카르타 게임 엑스포’와 ‘개발자의 날’ 행사가 열릴 계획임



## □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 2017 SXSW 페스티벌 참가 결정

- 2017 SXSW(South by Southwest) 페스티벌에 인도네시아가 재참가하기로 확정함
- SXSW 페스티벌은 매년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에서 열리는 연례행사로 컨퍼런스, 전시회,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 라이트크래프트(Lithtcraft), 더트리(The Trees), 더와일드(The Wild) 및 키모칼(Kimokal) 등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인디밴드가 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임
- 인니 창조경제위원회(BEKRAF)는 고젝(Go-Jek), 에이알앤코(AR&Co), 픽믹스(PicMix), 지디피(GDP) 및 엠텍(Emtek) 등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5대 어플리케이션 업체의 SXSW 참가를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클루닷아이디(Qlue.id), 해피파이브닷코(Happy5.co), 코스툼(Kostoom), 꾸아사(Kuassa) 및 드레드아웃(Dreadout) 등 디지털 어플리케이션도 이 전시회에서 전시될 예정임
- 특히, 드레드아웃(Dreadout)은 스튜디오 디지털 해피니스 인도네시아(Studio Digital Happiness Indonesia)라는 게임 제작사가 개발한 게임으로, 2016 도쿄 게임쇼에 전시된 전력이 있음



●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

- 0 미국 비즈니스센터(LA) 김철민 센터장 : +1-323-935-5001 / cmkim@kocca.kr
- 0 중국 비즈니스센터(북경) 김기현 센터장 : +86-10-6501-9971 / gihun@kocca.kr
- 0 일본 비즈니스센터(동경) 이경은 센터장 : +81-3-5363-4511 / lke0801@kocca.kr
- 0 유럽 비즈니스센터(런던) 최윤수 센터장 : +44-20-7016-3333 / yschoi@kocca.kr
- 0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0 중동마케터(UAE 아부다비) 박상욱 마케터 : +971-2-491-7227 / swpark@kocca.kr
- 0 남미마케터(브라질 상파울루) 박희란 마케터 : +5511-99906-1577 / brazil@kocca.kr